

2026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6.2.24.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5	2	15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권성주 기획제작부 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2	-	3	12	-	12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2	-	-	12

다. 전월(1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보도> 대전충남 통합이슈 관련 보도를 보면 정치권 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혜택을 이 돌아가는지, 주거, 복지, 명칭 문제 등 시청자의 입장에서 취재해 주기 바람.	행정통합 이슈는 옳은 방향이라고 공감하고 있고, 현재 어젠다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토론이나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보도를 이어가겠음. <26. 2월 조치>	'26.1월
보도	<충남 에너지 문제 개선 관련 보도> 새로운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는 수도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은 우리 지역을 통과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가 이슈가 되고 있음. 최근 에너지 식민지 관련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다뤄보면 어떤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도 2036년까지 갖고 가야 할 의제라고 생각함.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제로 잡아서 취재할 예정임. <26. 2월 조치>	'26.1월
보도	<교복 관련 보도> 대전에 교복 비용이 세종보다 두 세배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음. 작년에 보도했던 교육청 해법들이 잘 해결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함	교복 관련 보도는 담당자를 정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미 열개를 크게 잡아놔서 올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해서 반영하는 뉴스를 제작할 예정임. <26. 2월 조치>	'26.1월
교양	<기상캐스터 의상 관련> 겨울철에 화사한 건 좋지만 진행자들은 모두 겨울옷을 입었는데 기상캐스터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의 옷을 입었음. 어떤 콘셉트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음	기상캐스터 의상은 코디가 선택하는데 올해 새해 첫 방송이다 보니까 산뜻한 느낌으로 가려고 화사한 느낌의 옷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는 날씨 상황을 고려해 의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음. <26. 2월 조치>	'26.1월
교양	<특파민 코너 관련> 특파민 코너에서 평균연령 70세인 15분이 봉사를 나가는 '상록 마술 봉사단'을 봤는데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니어 봉사단체들도 많을 텐데 다른 코너에서도 소개해 주기 바람	특파민 코너는 여러 동호회와 지역 봉사단을 찾아가는 코너로 시청층을 고려해서 시니어 아이템으로 채우고 있음. 앞으로도 시니어층이 관심을 보이는 코너를 더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음. <26. 2월 조치>	'26.1월
교양	<문화나들이 관련>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연극제 3관왕을 수상한 연극 '검은 열목'을 소개해 주었는데 지인들에게 소개해주는 계기가 됨. 지역 소식을 더 많이 소개해 주기 바람	문화나들이는 올 한해 어떤 공연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문화계라인업을 훑어보는 코너를 제작한 것인데 앞으로도 지역 문화계 소식뿐만 아니라 문화인들을 발굴해서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하겠음. <26. 2월 조치>	'26.1월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자막> <시시각각>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보면 타이틀 자막이 있는데 '인공지능법..' 편이 '인공지능법..'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음. 수정이 필요해 보임	홈페이지 다시보기 자막 오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하겠음. <26. 1월 조치>	'26.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6년 2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심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액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라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행정 통합 관련 토론 및 보도> 행정통합 관련 토론이나 보도를 많이 다루긴 했는데 주로 찬성이나 반대 의견에 집중되어 있고 특별법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분야별로 구체화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보도	<교제 폭력 관련 안내 자막 보도> 교제 폭력 뉴스를 보도할 때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안내 자막을 같이 보도해 주면 좋겠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세계여성의 날 관련 보도>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인데 이와 관련해 여성 관련 교제 살인 등 사건들에 대해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역외제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쓰레기 관련 보도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 후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음. 발표됐다면 이후에 실효성이 있을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지 분석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천변고속화도로 사고 관련 보도> 천변고속화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단신을 다뤘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관리기관의 책임문제도 있어 보이는데 향후 사고 원인 및 대응방안 등의 보도가 이어졌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정치 현수막 관련 보도> 선거를 앞두고 대선에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선정적이어서 피로를 많이 느낌. 법적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 자막 표기 관련> 요즘은 음소거를 하고 자막으로만 뉴스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많은데 자막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면 좋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시인성 관련> 행정통합에 대해 시각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비교하거나 표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건강플러스 주제 관련> '건강플러스'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다루는 주제의 90%정도가 신체 질환임. 우울증, 공황장애 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정신 질환에 대해서도 다루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기타	<홈페이지 미리보기 관련> 홈페이지 TV프로그램에 '미리보기' 메뉴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돼서 잘 활용되지 않는 느낌을 받음. 활성화하지 않을 경우 정리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기타	<장애인 방송 예산 관련> 수어 등 장애인 방송을 위한 예산이 삭감돼서 복원해 달라고 지역MBC 차원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 복원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기타	<제작시스템 등 개편 계획> 2026년도에 촬영장비나 무대세트, 뉴스데스크 백월 등 개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2026년 2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백강희 부위원장, 이섬교 위원, 김미화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권성주 기획제작부 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재우 경영국장

오늘 회의는 여덟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욱 위원장님은 대학 교수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회의 진행은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매번 배부해 드리는데요. 2월에는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이 한 건도 없어서 배부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월 정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설 잘 보내셨는지 뒤늦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 길도 미끄러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걸음 하신만큼 오늘 하시는 말씀에 무게감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정기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오늘 김욱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셔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섬교 위원님부터 말씀

을 부탁드립니다.

이섬교 위원

2월 22일 일요일 오전 7시 40분에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이라는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MBC에서 만든 건 아니고 외주에서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 50대 넘은 분들이 많아서 요즘 황혼 이혼이나 졸혼 문화에 대해 많이 듣고 있어서 많이 와 닿았습니다.

진행자가 이혼 전문 박주현 변호사로 부부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혼이 뒤쪽으로 몰리는 황혼 이혼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편성 시간도 중장년층의 TV 시청률이 높은 주말 오전 7시 40분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니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프로그램 편성시간을 잘 배치한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 이혼 소송을 황혼기 이혼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장 같고 자극적인 요소들이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간의 감정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재판처럼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상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고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서 이혼에 대해 설명을 굉장히 잘 하세요. 저도 그런 법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 지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재구성도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

저는 최근 1~2월에 계속 교제 폭력 뉴스를 봤는데요. 25년 8월에는 <시시각각>에서 교제 폭력의 허점을 다뤄주셨고, 그 이후에 장재원 사건에 대해서 재판 경과를 추적 보도하면서 지역 의제로 계속 유지해 주신 점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판 법정에서 다른 추가적인 별을 받게 되는 상황들까지 보도해 주셨는데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나오는가 하면서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추적 보도하실 때 혹시 자막으로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1366 등 지역에 있는 상담소 안내 자막을 같이 내보내 주면서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혹시 대전 교제 살인을 단순 사건 보도가 아닌 예방이나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기획 보도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면 양성평등 주간이나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지역 의제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시각각>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12월부터 2월까지 여러차례 연속보도 해주셔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환기시켜준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목부터 무엇이 부족한지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등 질문형으로 쟁점을 세워주셔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이 시민들에게 체감이 잘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게 된다면 네이밍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 토론회는 주요 요지들도 한 장의 요약처럼 자막을 짧게 짧게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론의 장으로 연결해 주신 점이 관심을 더 이끌 수 있는 보도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성일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성일 위원

저는 보도를 중심으로 많이 봤습니다.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것 같아서 그 외에 제가 항상 지적하는 노동 문제나 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지난 7월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있었던 한솔제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과 고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이 한전 KPS에 직접 고용되었다는 관련 보도 2건을 봤는데요.

이전에도 항상 사고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후속 처리하는 과정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보도가 있어야 다시는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이 적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세종 GM 하청 노동자 집단 해고 문제가 얼마 전에 발생하고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2월에 전원 고용 승계로 이어지는 부분도 이런 미디어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천안 자동차 부품 하청 공장의 기획 파산 의혹과 집단 해고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 아산공장 화재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보도됐었는데 대전 충남에서 산업재해자가 연간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전기는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쓰레기는 충청으로 이동하는 불평등 문제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 저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대책 발표가 일주일 내에 있을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발표 후에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표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보도가 누락됐던 것인지, 발표가 있었다면 이후에 실효성이 실제로 있을지, 문제 해결이 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전선로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견 대전 충남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산, 공주, 세종 등 그 지역의 반발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대전에서는 유성구 지역을 지나가는 계획이 잡혀 있고 유성구 지역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보도가 없는 것 같아서 송전선로 건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수어 등 장애인 방송을 위한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지역MBC 차원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어 통역이 지역 방송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예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셨던 것이 느껴져서 실질적으로 예산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내컷>에서 가수 분이 나오는 걸 봤었는데요. 가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예술가들, 글을 쓰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여러모로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보는 만큼은 편안하게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에 제가 베트남에 있었는데요. 대전MBC가 베트남에서 다큐도 찍고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방송에 대전MBC 캠페인 '지역을 잇다 마음을 잇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멀리 타지에서 대전MBC 방송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 신기했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정성일 위원님 날카롭고 애정 어린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선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문선혜 위원

단신으로 나왔던 뉴스인데 조금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두 꼭지가 있는데요. 대전 MBC 홈페이지에 보면 많이 본 뉴스로 청양군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실시와 관련한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도 하고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 지역으로 선

정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신 보도로 간략하게 나왔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지금 절차나 사용 방법, 기대 효과, 그리고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후속 보도로 심층적으로 다루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설 연휴 때 와동 천변고속화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BRT 버스와 충돌해 스파크 운전자가 직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뉴스도 대전MBC에서는 그냥 단신으로 다뤘는데 저는 단신으로 사고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루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고의 원인이 그 고속화도로 진입로에 일방통행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게 아주 작게 되어 있어서 그 해당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해 일방통행인지를 모르고 들어갔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대전시든 아니면 해당 구청이든 국가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고 보도도 중요하지만 경위 파악이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도도 같이 이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건강플러스> 2월 14일 발달장애 편에 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달 장애 관련해서 기초 지식부터 증상 유형률, 평가하는 방법, 치료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차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점이 좋습니다.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건강플러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루는 주제의 90% 이상이 신체 질환인 것으로 느껴거든요. 우울증,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건강플러스>에서 신체 질환 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신 질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다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지금 대전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는 것은 행정통합과 관련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전MBC에서 6번 정도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시시각각>의 기본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공부 삼아서 흥미롭게 살펴보았습니다. 행정통합의 쟁점이라든지 시민 여론 또 특별법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대전 특별법과 대구경북은 통과되지 않았다고 발표가 돼서 <시시각각>에서 방송한 6회분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는데요. 보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찬성 반대 의견 개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MBC에서 <시시각각> 주제들을 다양하게 잡았는데 결국은 패

널들이 대안적인 부분들이나 특별법에 담겨야 될 내용들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계속 개념적인 이야기에 대해 반복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문화예술 부분만 하더라도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들을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을 다뤄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시각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비교하거나 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법들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토론자들의 의견이 계속 흘러가는 느낌들이 들어서 6회에 걸쳐서 편성을 한 것에 비해서는 구체화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대전MBC가 가장 중요한 지역의 이슈들을 다뤄주신 부분과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들이 느껴져서 좋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는 대전충남특별시, 통합특별시라는 명칭들을 사용하다가 이후에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제목도 바꿨는데요. 그런데 배경 화면에는 여전히 대전충남특별이라고 기재돼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니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내컷>을 보면서 늘 문화예술 관련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요. 2월 8일 '시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가수 진체가 나왔습니다. 가깝게 아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몰랐던 부분들을 더 가깝게 느끼고 많이 위로가 되는 느낌으로 봤습니다. 도입부에 겨울 풍경과 서시 노래가 잘 어우러져서 마음을 더 두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생내컷>을 스토리 위주로만 생각했었는데 출연자들의 삶의 주제와 계절의 어울림을 함께 고려하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계절이 주는 울림들과 화면이 주는 울림들은 시각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요. TV프로그램 <오늘M>, <시시각각>, <테마여행 길>, <건강플러스>를 보면 '미리 보기' 메뉴가 있더라고요. <오늘M>의 경우에는 '방송 정보'가 2023년 5월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시각각>은 제가 미리 보기를 미리 챙겨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게시판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더 적극적으로 그 게시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내용이 제대로 게시되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방송과 관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에서만 했는데 채널 선택권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경기들을 보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방송사끼리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불편하게 지켜봤는데 월드컵 중계도 그럴 것이다 하는 예측들이 많아서 상당히 불편하게 바라보는 부분이라고 같이 말씀드립니다.

한 달 동안 재미있게 봤고, <시시각각> 덕분에 우리 지역의 이슈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연휴가 있음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모니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승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2월 2일 <뉴스투데이>를 봤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 방송에서 한 꼭지 정도 지역 뉴스를 연결해서 다루는 걸 보긴 했는데 그 날은 MBC충북 보도 2건이 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윤 어게인 관련된 불법 현수막이고, 또 하나는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한자 공교육 강화 꼭지입니다 대전MBC에서 MBC충북 뉴스를 방송하는 걸 보면서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현수막 철거 관련 보도입니다. 제목이 '윤 어게인 현수막 "불법"...줄줄이 강제 철거' 인데 아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내란 정당화,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부의 유권 해석에 의해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돼서 청주시에서 자체 철거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같습니다. 현수막 설치 적법성 여부라든지 행정기관의 대응 과정을 짚어준 점은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다만 설치한 쪽의 의견 없이 철거하는 지자체의 입장과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의 의견만 담았던 것 같습니다. 공정 보도라는 것은 결국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고 시청자의 판단을 조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전에도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문구라든지 내용들이 너무 선정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져서 시민들이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약자라든지 이동 보행 약자 분들은 이 현수막에 가려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거나 전동차가 움직일 때 시야에 방해 받고 있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현수막이 더 난무할 텐데 행정적 절차나 법적 기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시청자들이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사거리나 전봇대, 가로등에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북교육청에서 문해력 관련된 내용인데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보도입니다. 한자어 비중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 향상이나 확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보도였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한자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대전도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6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올해 1월부터 한자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2월 공모에 들어가서 초·중학교 6개 학교를 선도 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은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자 교육을 한다는 게 큰 틀인데 결국 당장의 교재는 없어서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장학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인데 보통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후속 작업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한자 교육의 당사자는 아동 청소년인데 교육 행정당국에서 끌고 나가는 주도적인 부분만 보도되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의 문해력 약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교육 차원에서만 다루다 보면 또 다른 사교육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후속 부분도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1일 <오늘M>에서 '검은 반도체 김의 무한 변신'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검은 반도체가 김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유럽에서 우리나라 김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하던데요. 한국의 대표 식품인 김을 단순한 식품이 아니고 문화 수출 또 한류 현상과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김 생산지를 다도해 중심으로 전남이나 경남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꼭지는 태안에서 김을 양식하는 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선도적으로 김에 대한 전도사로 활동했고 이름도 김장수 씨더라고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제가 태안에서도 원초가 나오나 자료를 확인했더니 보통 표기는 국산으로 표기가 되고 2차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안 양식장에서 직접 원초를 따는 모습을 보니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문화가 김까지 이어져서 인기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통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김 썰라또라는 새로운 간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흥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초반부터 추운 겨울 바다에 가서 리포터분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 현장감을 담기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 받으면서 방송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방송 환경 제작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촬영 장비나 무대세트, 뉴스데스크 백월 등 올해 2026년도에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M>은 2024년까지 활용하던 세트가 2025년 1월부터 가운데 메인 세트는 유지하면서 양 옆에 디스플레이만 변경했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탁상 위에 꽃수반 정도만 바뀌었다고 할까요. 물론 큰 예산이 들어가서 계속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해가 바뀌었으니 따뜻한 봄날을 맞아 세트 환경도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좋은 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애정 어린 제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원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원희 위원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의견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슈인데요. 오늘 통합 보류 형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은숙 위원님 의견하고 유사한데 행정 통합이 정쟁의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설명이 보강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구조적인 설명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들면서 의견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동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방 의회 구성이나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변화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주변 교사를 얘기를 들어보면 통합되면 충남에서 돌다가 운 좋으면 대전으로 들어오는 거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임용고시도 시도별로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통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심어줘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산된 게 아니라 보류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대전MBC에서 지켜봐야 하는 무거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주변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왔는데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통합됐던 사례들의 성과가 어땠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통합 사례로 ‘마·창·진’이 기억났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어떤 분들은 좋아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통합이 삶에 어떤 이익으로 다가오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내가 피해 보는 건 누구나 싫어하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기획 보도라는 형태로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어서 대전에 사는 시민으로서 행정통합이 개인적으로도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정쟁 이슈 때문입니다. 좋아질 거라고 다들 막연하게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보류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가 기대됩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뉴스데스크>나 <시시각각> 보도 분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엽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음성을 소거하고 자막으로만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자막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자막만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2월 15일 <뉴스데스크> 보도 중에 하나의 사례인데요. ‘충남 ASF·AI 잇단 발생’이라는 자막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나오고 자막으로는 압축된 형태로 표기했는데요. 자막에서는 ‘충남 가축 전염

병 잇단 발생’으로 표기해 주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2월 13일 뉴스 자막에서는 ASF가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자막에 표기하셨던데 그 사례가 좀 더 시청자 입장에서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19일 <뉴스데스크> 자막 중에 ‘원 포인트 임시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원 포인트’라는 용어를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원 포인트’라는 용어 자체의 본래 뜻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건 회의’ 이렇게 순화해서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방문한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소위 입틀막 사건을 다 알고 있지만 ‘사라진 입틀막’이라고 대전MBC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언론들이 ‘입틀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처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행정 통합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가 보류됐고, 3월 3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인데 그 전에 다시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넘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어려워 보여서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계속 정쟁이 돼서 누구 책임이나 하면서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나 토론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다뤄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통합에 긍정적인 측면을 인지시키는 과정들이 더 많았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지 3월 3일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뉴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에서도 이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 주제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비주열적인 측면을 강화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인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CG작업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제 폭력 관련해서 피해자 상담 전화 자막 안내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바로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관련 뉴스 나갈 때 자막으로 삽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 긴급 전화 등 전화번호를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말씀해 주셨는데 3월 8일은 대전에는 중요한 날이거든요. 3.8 민주주의 날이 있었던 날이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여성의 날 관련 뉴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께서 한솔제지, 김충현 노동자 관련 직고용, 세종GM 등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종GM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한겨레 기자분이 열성적으로 취재해 주신 덕분에 GM본사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대전MBC는 따라가면서 도와드렸던 건데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 버리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었는데 명절 직전인 2월 12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문에 놓친 것 같습니다. 마침 MBC충북에서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기사가 저희 경력기자로 입사했는데 그 기사로 오늘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므로 앞으로 쓰레기 관련 문제는 철저히 보도 하겠습니다.

문선혜 위원님께서 천변고속화도로 문제에 대해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명절이라서 그날 뉴스가 짧았습니다. 본사에서 사건사고 종합 보도를 한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지원해서 본사에서 리포트를 한 것입니다. 신탄진쪽에서 잘못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 말씀 주신 MBC충북 뉴스 관련해서 월요일 뉴스투데이는 MBC충북과 기사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는 선거 시즌도 돼서 2월 3일부터 많이 강화됐지만 세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당 현수막과 정치인 현수막 관련뉴스를 제작해서 다시 한 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시스템과 뉴스 센터, 세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뉴스 세트는 개편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은 잠시 후 인프라국장님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ASF, AI, 원포인트, 입틀막은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지만 자막으로 표기할 때는 시인성 있고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권성주 기획제작부 부장

1월~2월은 보통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2월에는 설 명절까지 있어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은 시니어TV에서 제작해서 공급받는 외주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은퇴설계 노하우>라는 프로그램에 이어서 두 번째 프로그램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주 시청자 층이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그 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이른 아침 시간에 편성했는데 재미있게 봐주셨다고 해서 앞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황혼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내컷>과 <오늘M>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지역의 예술인들과 특산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관련해서는 섭외할 수 있는 의사분이나 병원 진료과목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병원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정신 질환 과목들도 좀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담당PD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수진 인프라국장

뉴스센터 개편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스센터 세트는 뉴스와 <시시각각>을 제작하고 있는데 설치한 지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뉴스 할 때 뒤에 있는 배경 화면은 DID 타입인데 TV모니터 15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다보니 TV와 TV사이의 격자가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요즘에는 LED 판넬로 만드는 게 대세라서 올해 교체 예산을 잡았고 업체도 선정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설치를 끝내서 선거 방송부터 이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데 3월말에 입고 돼서 4월 중에 검사를 마치고 5월 초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뉴스 세트도 너무 오래돼서 데스크도 같이 바꿔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욕심대로 할 수는 없고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 예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ED월이 설치되면 모니터 길이가 기존 가로 4.8m, 세로 2.7m에서 가로 10m 세로 2.7m로 늘어나서 시각적으로도 화면에 잡힌 모습도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CG를 활용해서 다양한 영상 구현이 가능하고 XR, AR까지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스펙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뉴스나 <시시각각>외에 간단한 프로그램들도 LED를 활용해서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추가 질문이나 답변 있으신지요?

조원희 위원

뉴스 관련 제작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뉴스를 보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뉴스 내용을 제가 해석해 줬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는 쉽게 얘기를 해 주는데 정치 문제는 아이들이 잘못된 관념이 생길까 봐 얘기를 잘 해주지 않는데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뉴스 중에서 하나 정도는 포맷을 변경해서 부모님들의 설명이 필요 없고 청소년들이 패널로 나와서 대신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선거하는 18세 학생 유권자들을 패널로 구성해서 그들만의 생각을 담아 보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부분과 학생 섭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포털 뉴스에 '오밤뉴' (오늘의 밤 뉴스)라고 해서 챗GPT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캡션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마지막으로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진종재 사장님의 마무리 인사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요즘에 뉴스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로 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다 보니 여러 가지 유인 전략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을 보면 지상파 혹은 종편 채널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기보다는 요즘 뜨는 넷플릭스나 다른 OTT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MBC의 역할과 시청자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회의에는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 날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방송 보조금은 1년에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지원을 받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사들도 같은 처지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들은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설날 연휴가 있어서 콘텐츠가 많지 않았음에도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이 논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상으로 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